

# 문화적 접근 방법에 의한 20세기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 연구

정 유 경\* · 전 혜 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Cultural Approach 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20th Century French Fashion

Yu-Kyung Jung\* · Hei-Jung Chun\*\*

Maste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5. 8. 25 투고)

### ABSTRACT

Fashion is very superficial. However, it is expressed through the culture that is a cause of internal change and therefore its contents are defined by the cultural features. In this study, to study the aesthetic properties of the French fashion, the internal fashion content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rance and based on the definition, the external features are investigated. The cultural characteristic was analyzed based on the reference literatures on the French culture. Based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rance, the aesthetical properties of the contemporary French fashion can be analyzed as follows:

- Dualism is the internal contents of the French culture with multiple sources, and it implies that opposing values such as female and male, traditionalism and modernism, simplicity and decoration are coexisting. Simplicity is pursued but decorative elements are in harmony and new phase of time is reflected while certain style has las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o become a tradition. Furthermore, a rational trend combining masculinity and femininity, simultaneously exist with a trend that emphasizes feminine image.
- Multiculturalism is a mysterious feature that has adapted the oriental or other cultural factors into the forms, patterns, colors and material of costumes. It has also been reconstructed with the French and the modern tastes.
- Avant-gardism is pursuing a novel aesthetic value against the former value system. It recognizes the human body as an object of figurative arts therefore emphasizes the body with geometric shapes to deny the fixed-idea, or engraft new materials and technologies to express the futuristic aspects.

Key words: dualism(이중성), multiculturalism(다문화성), avant-gardism(실험성)

## I. 서론

패션이란 개인, 집단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패션의 흐름은 사회 기반의 변화를 반영한다<sup>1)</sup>. 즉, 현대 패션은 미적·보호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예술적 시대 현실을 대변하는 문화의 집합체로서 인식할 수 있다. 호거트(Hoggart)는 문화에 대해 “어느 특정한 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 신념, 태도 그리고 특징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의 모든 구조, 의식, 몸짓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의된 예술 형태로 표현 된다”<sup>2)</sup>고 정의하였다. 즉, 문화가 집단적으로 범주화되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았을 때, 패션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사회의 가치·전통·사회 구조·미의식 등에 의해 창조되는 조형 예술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의 내적 내용은 한 시대의 철학·종교·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국가·풍토적 성향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특정 집단에 대한 범위를 독특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지닌 민족이나 국가로 한정한다면, 그러한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 현상의 한 부분으로서 그 나라의 패션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 패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는 시민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대혁명의 본고장으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관용의 정신을 통해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험적이며 개성적인 특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전통과 정신세계 즉, 문화적 차별을 바탕으로 창조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세계적인 문화의 기류로 보급하여 오늘날 패션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프랑스가 추구하는 미의 특성은 한 나라만의 고유한 패션 특성일 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들이 요구하는 가치·이념과 이를 표현하기 위한 외적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의 미적 특성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개념으로의 접근을 통해 프랑스 패션의 미

적 특성을 고찰해보는 것은 패션의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문화·예술에 있어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패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보탬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여 내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외적 형식을 분석하여 프랑스의 미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프랑스 문화는 지리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철학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프랑스 문화의 특성을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

셋째, 프랑스 문화의 특성이 현대 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연구 방법은, 프랑스 문화에 관한 문헌 자료에 근거한 내용 분석적 방법을 통해 각 문화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가운데 그 명성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는 디자이너 5인 (Gabrielle Chanel(1913)·Christian Dior(1947)·Hubert Givenchy(1952)·Pierre Cardin(1953)·Yves Saint Laurent(1962))을 선정하여 프랑스 패션의 보편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수록한 그들의 작품 전집을 중심으로 프랑스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단, 디자이너 死後에 만들어진 작품일지라도, 디자이너 고유의 정신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작품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은 분석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패션을 분석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대 패션의 ‘현대’라는 시기는 20C가 시작되는 1900년대 이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패션의 외적 형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이너 5인에 대하여, 1900년대 이후 등장하여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가운데 복식 분야의 작품 활동

시작 시점이 가장 오래된 디자이너 순서로 제한하였으며, 디자이너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인의 작품 전집이 출판된 디자이너로 한정하였다.

## II. 프랑스 문화

문화는 “특정 민족이나 시대,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서, 한 집단의 사회적인 관계가 구조화되고 모양새를 갖추는 양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양새가 경험되고 해석되는 방법<sup>3)</sup>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패션은 모든 영역에서 영감을 얻고 모든 자극적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일상의 것들, 즉 예술·문학·우주여행·컴퓨터·젊은 층의 문화·페티시즘과 같은 성적 관행·제 3세계 국가들의 빈곤함 등이 패션을 창출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션은 문화의 통합적인 구성요소로서 문학·그림·영화와 같이 한 문화의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중요한 요소이며<sup>4)</sup>, 정치적인 사상, 다양한 사회 활동, 혹은 경제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시대정신, 이른바 문화적 가치관을 시각적 형태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인 체제와 상호 작용의 결과물이다.

문화는 사회적 유산으로서 모방되고 계승되며, 시대에서 시대로 전승되는 역사적 축적이므로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반면에 동일한 사회 내에 동일한 물질과 역사적인 조건을 공유하는 집단은 공통된 문화 특성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에서 형성된 패션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를 거울처럼 반영하게 된다. 즉, 패션은 의형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함축하고 있는 내적 의미만큼은 특정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프랑스 패션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랑스 문화의 형성 배경을 지리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철학적 특징으로 분류<sup>5)</sup>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프랑스 문화의 형성 배경

#### 1) 지리적 특징

유라시아 대륙의 북서쪽 가장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French Republic)의 국토는 대략 직경 1000km의 원에 내접하는 6각형의 형태를 취한다. 북서쪽은 영불 해협과 북해,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에 접해 있다. 반면, 룩셈부르크·벨기에·독일과 접하여 있는 북동쪽은 광대한 유럽 평원에 이르는 대문의 역할을 하며 동쪽은 알프스 산맥과 쥐라 산맥을 경계로 이탈리아·스위스와, 남서쪽은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에스파냐·안도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대부분 바다와 산맥을 경계로 하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프랑스 영토의 통일성은 매우 일찍부터 확보되어 있었고, 그 결과 프랑스는 서양 최초의 단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sup>6)</sup>.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설정된 경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폐쇄적이지 않다. 프랑스는 북동쪽 산맥의 수많은 협로를 통하여 광대한 북유럽 평원에 이를 수 있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대서양과 지중해, 북해 쪽으로 모두 열려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해안에서 500km이상 떨어져 있는 지점이 전혀 없을 정도로 바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큰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로 하여금 넓게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쪽으로, 좁게는 북유럽과 지중해 연안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중해 연안 지방과 대서양 및 북해 연안 지방을 연결시켜 주는 유럽 문명의 교차로 역할<sup>7)</sup>을 할 수 있었다. 즉, 프랑스는 대서양과 지중해 국가들 간의 교량 장소로서 15C부터는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였으며, 언제나 유럽에서 상업·사상·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2) 사회적 특징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 정복 사업을 벌이던 당시(기원전 58-51),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골(Gaule) 지방이라 불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갈리아(Gaulois)라 불렀다. 이들은 켈트(Celts)족의 일파로서 곧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고 로마의 한 속주가 되어 갈로-로마 시대를 맞이하며

갈로-로마인이 된다<sup>8)</sup>. 거대한 경제적 공간과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 통합된 골은 화려한 도시 문명을 꽃피우게 되며, 그리스·로마 문명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그 문명에 동화하여 로마 제국의 언어·제도·예술·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쉽게 수용하게 된다<sup>9)</sup>. 오늘날 프랑스의 법에 대한 감각과 실용 정신은 그 당시 로마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4C 이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골 지방에는 게르만계의 프랑크족이 프랑스 최초의 왕조인 메로빙거(Mérovingiens) 왕조를 열게 되는데, 프랑스인의 건축에 대한 남다른 재능은 게르만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옥한 프랑스 지역의 북부를 넘나들던 노르만족으로부터는 진취성을 이어받았다고 한다<sup>10)</sup>. 이처럼 다양한 민족과 켈트·그리스·로마·게르만의 다문화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프랑스는 주변 지역의 문화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 내부로 흡수되는 이질적 요소를 오히려 프랑스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방적인 문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랑스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간의 유동성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들은 1944년 최초로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 자격이 주어졌<sup>11)</sup> 이래로, 60년대 말부터 여성신장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프랑스를 남녀평등과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 중의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에서 정치 엘리트로서 여성의 역할은 가장 후진적인 신세에 놓여 있다<sup>12)</sup>. 이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가 성의 위계질서, 남·여간의 역할 분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정 관념을 통해 오늘날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는 사회적 지위가 놀라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사회를 흔히 '고정된 사회(société bloquée)'<sup>13)</sup>라고 한다.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력에서 일정한 계층이 형성되어 상호간에 교류가 힘들고,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상승을 생각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도 서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

리의 결혼은 드문 형편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귀족 신분이 없어졌을 지라도 아직까지 숨은 전통은 살아 있으며 그 잔재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능력 위주로 변해 가는 사회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교육수준이나 생활양식 등으로의 신분이 구분되며, 그렇게 구분된 신분이 고정되어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구조적 전통은 사회제도적으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프랑스 사회가 '이중의 속도(à double vitesse)'<sup>14)</sup>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

### 3) 정치적 특징

1774년 루이 16세가 즉위하면서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궁정의 문화가 온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궁정의 사치와 지배 계급의 부정, 빈곤과 재난, 전쟁의 패배 등에 의한 민중의 불만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연결되었다. 혁명은 단시일 내에 모든 특권을 일소했고 그 후부터는 특권 계급의 세금 면제, 귀족 계급에게만 개방되었던 직업 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sup>15)</sup>.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구체제의 불평등과 특권이 사라지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 사회로의 발돋움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문화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은 분명히 자유와 평등이 정치적으로 실현되고 혁명이 압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된 첫 번째 혁명이었다. 프랑스 시민 혁명의 시작이 된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의 군사 구테타에 의해 일단락되었으나,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전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프랑스 현대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오늘날 자유는 인종과 신앙의 모든 구별이나 차이를 넘어선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의미함으로써, 또한 평등은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로써, 박애는 자유와 평등의 달성을 전제로 한 국민적 단합의 이념이며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이념<sup>16)</sup>으로서 프랑스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급 문화·저급 문화, 귀족 문화·서민 문화와 같은 대조적인 경계 구분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산하며, 그러나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면은 대혁명을 통해 얻어낸 대표적인 프랑스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근대 국가의 모델로 등장하며, 이와 동시에 전제군주 시절부터 모든 국가의 업무를 중앙에 결집시키는 중앙집권제를 강력하게 실시한 나라이다. 취향의 다양성이 지배하고 이성과 정열이 서로 경쟁하듯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중앙 집권제는 개성적인 프랑스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프랑스 사회를 결집시키고 지탱하여 왔다. 또한 이 제도는 절대 왕정시대부터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 예술 정책을 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구체제에서 만들어진 예술, 문학, 문화재 보호·육성에 관한 전통이 혁명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고 오늘날 프랑스 문화 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된다<sup>17)</sup>. 일찍부터 후원자 겸 통제자로서의 중앙권력이 이른바 ‘문화국가’로서의 프랑스 배후에 있었으며, 따라서 프랑스에서 문화와 정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었다.

#### 4) 예술적 특징

미술사가인 앙리 포실리옹(Henri Focillon)이 지적했듯이, 프랑스는 강력한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 중부 유럽의 영구적인 하나의 지방으로 머물게 될 것을 모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르네상스로 인한 것이다<sup>18)</sup>. 프랑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끝나갈 무렵 샤를르 8세에 의한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계승된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화려하고 감미로운 이탈리아 예술에 매료되었다. 이후, 프랑수아 1세는 문예를 애호하여 이탈리아로부터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벤베누토 첼리니(Benvenuto Cellini) 등을 초빙하였으며, 고전 연구를 장려하여 그리스-로마의 고대 문화 부흥을 통해 새로운 근대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로 계승되는 르네상스는 인간의 속성에 대하여 감성적인 영역과 지성적인 영역, 물리적 충동과 정신적 조화, 생의 확산과 집중 등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현상을 일깨워주게 되었는데, 이는 과장과 겨동의 미를 지향하는 바로크 미학과 균형과 조화의 미

를 지향하는 고전주의 미학으로 나타나게 된다<sup>19)</sup>. 즉, 프랑스가 유럽 내지 전 세계 문화의 초점이 되는 17C에 질서와 절제, 품위를 중요시하는 고전주의 경향이 바로크 양식과 더불어 생겨나게 된다.

루이 14세 치세가 끝난 후, 18C의 문화 예술은 강력했던 절대 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려하고 장엄한 궁정 예술이 쇠퇴하고 귀족과 부르주아 중심의 예술이 꽃피기 시작한다. 특히, 독일이나 영국 등지에서 먼저 시작되는 낭만주의가 위고(Hugo), 비니(Vigny), 뤼세(Musset), 라마르틴(Lamartine) 등에 의해 프랑스 문학사를 이끌어 가게 되며, 나아가 프랑스 예술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는 주관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것을 상징적인 수법을 통해 표현하려는 상징주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게 되는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

19C 미술계는 회화에 의해 대표되는 시기로 프랑스가 유럽 미술계의 지도자로서 그 중심에 서게 된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경향과 함께 시작되는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마네(Manet), 피사로(Pissarro)와 같은 프랑스 젊은 화가들에 의해 오늘날 모든 회화의 근원이 되는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C에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용 예술을 신속히 재조직함으로써, 아르 누보와 아르 데코의 미술 양식이 모두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sup>20)</sup>.

이처럼 19C 동안 유럽 예술, 나아가 세계 예술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프랑스는 20C에도 끊임없이 예술의 새로운 표현을 모색하고 창조하는 노력을 통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20여 년 동안 근대 미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문학사에 있어서도 초현실주의와 실존주의를 통해 큰 획을 그치게 되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옮겨온 16C부터 1930년대 이후 예술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기 직전까지<sup>21)</sup> 프랑스는 분명 세계 예술사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예술적 전통은 오늘날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사진·영화·패션 분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시점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5) 종교적 특징

프랑스는 종교로 인해 전쟁과 분열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 종교 전쟁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이 서로 목숨을 걸고 충돌하는 것인데 중세에는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십자군 원정으로, 종교 개혁 이후에는 1559년에서 1598년에 이르는 40여 년의 기간 동안<sup>22)</sup> 구교와 신교간의 잔혹한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에 의해 신·구교간의 내전이 끝나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시발점으로 프랑스 사회는 전통적인 카톨릭교와 계몽주의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즉, 구교 카톨릭과 계몽주의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고리이다.

종교로 인한 전쟁과 분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비극적인 역사를 남기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역사는 프랑스 사회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보수주의와 혁명주의, 깊음과 가벼움이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일깨워주게 된다. 이는 프랑스 특유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관용<sup>23)</sup>의 정신으로 이어지며, 대립과 분열의 분위기 속에서도 조화를 추구하려는 프랑스 사람들의 의지로 나타난다.

### 6) 철학적 특징

‘명석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적이지 않다(tout 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français)’라는 문장은 프랑스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글이다. 이는 프랑스 철학이 명석과 판명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데카르트(R. Descartes)로부터 나름대로의 성격과 특징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줄곧 명료성을 대전제로 하여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립과 융화의 변증법적 능력이 독일적 이성이라고 한다면, 프랑스적 이성은 판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를 명증적 진리로 삼으며, 의심하는 한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관하고 그로부터 객관세계의 존재보다도 더 명백한 의식 세계의

존재를 확인했다. 데카르트적 이성이야말로 프랑스적 이성인 것이다<sup>24)</sup>.

알렉산더 쿤(Alexander Gunn)은 프랑스 철학에 대해 “철학에 있어서의 프랑스적 정신은 명료함, 구체성, 그리고 생동감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프랑스인들이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분명한 사고를 전개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명석한 논리와 비판을 즐기는 주지주의와 구체적인 것을 존중하는 실증적 정신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명료한 카테고리의 설정을 즐기는 정신은 프랑스인들의 대표적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프랑스인들은 광기의 세계 속에서도 논리적이며,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언어만큼 잘 배열되어 있고 명석하다고 평가된다. 즉, 스스로 명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지성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논리적 정신을 도입하려 한다. 그러나 논리와 명석함은 그 반대로 깊이의 직관을 가져오는 섬세함의 정신(l'esprit de finesse)<sup>26)</sup>도 갖고 있다.

## 2. 프랑스 문화의 특성

### 1) 이원적 구분과 관용

작가 비앙치오티(Bianciotti)에 의하면, 문학에서는 “두개의 프랑스가 나란히 존재하는데, 한 번도 공존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되어 온 라블레(Rabelais, 1494-1553)의 문학과 부왈로(Boileau, 1636-1711)의 문학이 그것이다.” 또한 두 개의 프랑스는 “소박한 언어·완전히 사건 발생 순서대로 전개되는 이야기·명석한 정신이 프랑스어의 절반을 이룬다면, 풍부함·정상을 벗어난 감정·모호함·시적인 분노·사실주의를 지닌 언어가 나머지 절반을 이룬다.”고 하였다<sup>27)</sup>. 이는 프랑스 사회 전반의 대립되는 문화적 특성을 문학 장르를 통해 일축한 문장이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대로 프랑스 문학, 넓은 의미의 프랑스 예술은 합리적인 이성과 감성적인 정열이 그 표현 방식을 달리하며 공존하고 있다. 즉, 규칙·질서·논리·절도·형식을 중시하는 표현과 이를 거부하는 표현이 서로 대립되면서도 함께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이원적 구분은 예술 분야에서뿐만 아니

라, 종교·정치·사회 분야에서도 보수와 진보, 전통과 현대의 이중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구교와 신교간의 치열했던 종교 전쟁을 비롯하여 자유사상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와 보수적인 카톨릭교 사이의 새로운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 국민 정신의 두 경향이기도 한 종교와 자유 정신간의 갈등은 프랑스 정신 속에 뿌리 깊게 결합되어 있으며<sup>28)</sup>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가진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표출되는데, 카톨릭 세력은 전통과 권위를 대표하는 보수 정치 세력으로 결합되며 계몽주의 세력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 정치 세력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정치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좌·우익의 대립은 이 같은 카톨릭 보수주의와 계몽적 진보주의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며 동거 커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진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교육수준이나 생활양식 등에 의해 사회적 신분이 구분되고 계층간의 외형적·관습적·의식적 장벽이 매우 높아서 고정된 신분이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보수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 사회의 이중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60년대 말부터 여권 신장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성의 위계질서·남녀간의 역할 분화에 대한 고정 관념이 오늘날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사회는 여성적 가치와 남성적 가치, 즉 남성과 여성의 성을 사회적으로 구분 짓는 문화적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에드워드 폭스(Edward W. Fox)는 역사를 따라 흐르는 두 개의 프랑스를 언급하였으며, 프랑스에 대하여 '정신 분열증'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sup>29)</sup>. 이처럼 프랑스의 대립되는 이중적 특성은 긴 역사를 통해 형성된 프랑스 문화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과 감정, 전통과 현대,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대립이 프랑스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린 문화 현상일지라도, 이러한 대립적 요소들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포용되고 인정된다.

## 2) 다문화적인 요소의 혼합

프랑스는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환경을 통해 유럽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며 동시에 잦은 이민족의 침입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프랑스 문화가 주변 문화에 쉽게 융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기원전 500년대부터 프랑스는 북쪽 켈트족의 영향과 남쪽 그리스·로마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번영을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16C에는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프랑스에 전해지게 되고, 프랑스는 이를 계기로 예술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로마 제국이 와해된 후, 게르만계의 프랑크족이 프랑스 최초의 왕조를 열게 되지만, 이슬람·헝가리·노르만의 침입이 매우 잦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 바다를 통해서 온 노르만 또는 바이킹이라 부르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지속적으로 프랑스 지역을 침입하였다. 이러한 강제적·자연적인 문화 교류에 의해 프랑스는 그 식생·풍토·인구·사회 심리·역사에 있어서 유럽 각국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프랑스는 애초부터 쇠국 정책이 아닌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책을 통해 오히려 인접 국가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이에 오늘날 프랑스는 이민족의 문화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혼혈 인종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sup>30)</sup>. 따라서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적인 요소들의 특징이 융합되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오히려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산출하였다.

## 3) 다양한 예술적 표현의 시도

프랑스는 지중해 연안 지방과 대서양 및 북해 연안 지방을 연결시켜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대서양과 지중해 국가들 간의 교역 장소로서 유럽에서 상업·사상·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16C에 이르러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이탈리아의 문화를 도입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프랑스에 토착화를 이루면서 프랑스 전역에 걸쳐 확산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프랑스인들이 위대한 문화 개혁 사업에 열광적으로 뛰어들어 장차 프

랑스 문명에 쇄신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르네상스 미술이 일깨워주는 감성과 지성의 상반된 속성이 17C 절대 왕권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프랑스에서 자유와 격정의 미학을 지향하는 바로크 양식과 질서와 조화의 미학을 지향하는 고전주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루이 14세의 치세가 끝난 후, 18C에는 장엄한 궁정 예술은 쇠퇴하지만 귀족과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기교적이고 섬세한 로코코 양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장식 취미와 세련미가 프랑스인들의 예술 감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프랑스 예술은 비록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새롭고 다양한 취미를 반영하는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왔다. 이에 19C 거의 모든 예술 사조가 파리에서 시작되었으며<sup>3)</sup>, 프랑스는 예술과 사상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통은 영화·연극·사진·패션 분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표현을 지양하고 항상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 Ⅲ. 20C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프랑스 문화의 특성을 프랑스 현대 패션의 내적 의미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외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 1. 이중성(Dualism)

프랑스 패션의 이중성은 이원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내적 내용으로 단순과 장식, 전통과 현대, 여성과 남성의 대립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패션에 나타나는 양극대립의 이중성은 한 문화권 안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며 별도로 존재하거나, 대립적 특성이 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 1) 단순과 장식

프랑스 예술은 합리적인 이성과 감성적인 정열이 그 표현 방식을 달리하며 공존하여 왔다. 즉, 이성을 중시하는 질서·절제·간명(簡明)의 표현과 감성을 중시하는 과장·역동·장식의 표현이 서로를

<표 1> 프랑스 문화

· 합리적 이성과 감성적 정열의 대립으로 예술 표현에 있어서 규칙·질서·논리·절도·형식을 중시하는 표현과 이를 거부하는 표현이 공존함	이원적 구분과 관용
· 구교와 신교간의 치열했던 종교 전쟁의 역사	
· 자유사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와 보수적인 카톨릭교 사이의 갈등	
· 프랑스 정치의 진보적인 좌익과 보수적인 우익의 대립	
· 사회 제도의 진보적 성향과 사회 구조의 보수적 잔재가 공존	
· 생물학적 성의 기준에 의한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의 사회적 구분	다문화적 요소의 혼합
· 전통적인 남·여간의 역할 분화에 대한 고정관념	
·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환경	
· 잦은 이민족의 침입과 유럽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통해 주변 문화요소가 쉽게 융화됨	다양한 예술적 표현의 시도
· 기원전 500년대부터 북쪽 켈트족의 영향과 남쪽 그리스·로마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변영을 누리게 됨	
·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책을 통해 인접 국가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보임	
·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혼혈 인종의 구성을 가짐	
· 프랑스에 토착화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프랑스 문명에 쇄신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됨	
·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상징주의, 인상주의 등의 다양한 예술적 갈래가 모두 프랑스를 중심으로 꽃피우게 됨	
·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새롭고 다양한 취미를 반영하는 예술적 표현을 다양한 장르에서 시도함	



견제하며 함께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 문화의 특성은 순수 예술에서만이 아닌 복식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프랑스 패션의 단순하고 절제된 형식과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형식의 이중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멋이란 단순함, 소박함에서 출발 한다”<sup>32)</sup>라는 샤넬(Gabrielle Chanel)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패션에서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단순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상 제거하라, 항상 줄여라”<sup>33)</sup>고 말했던 샤넬이 추구하는 단순함은 유연한 소재로 흐르는 듯한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하면서, 걸치레적인 장식을 제거하고 절제된 명확성을 통해 여성의 인체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샤넬과는 달리 인체의 특정한 구조를 부각시키려 했던 디오르(Christian Dior) 또한 기교적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신체의 구조를 나타내고, 직물이 갖는 특성을 표현하여 복식의 조형적인 실루엣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디오르는 “잘 커트된 드레스란 커트가 거의 없는 드레스이다”<sup>34)</sup>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로베르 뻬게(Robert Piguet) 밑에 있었던 어린시절에 뻬게가 늘 주장하였던 “엘레강스는 전적으로 단순미에 달려있다(Elegance lay solely in simplicity)”로부터 배운 교훈인 “축소의 예술(The Art of Reduction)”이 그의 디자인 모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5)</sup>. 검정색 실크 드레스의 <그림 1>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면서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네크라인을 통해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인체를 따라 흐르는 슬림한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간결한 라인을 부각시키며, 같은 색상의 벨벳 장식 끈을 드레스의 포인트로 연출함으로써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소재의 표면에 장식적인 변화를 절제한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작품의 <그림 2>는 네크라인의 구조적인 절개선에 의해 드레스의 단순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구조선의 변화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디자인은 단조롭지만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주며, 장식 포인트로 사용된 코사지와 모자의 리본은 드레스의 단순한



<그림 1> Christian Dior, F/W 1995, 『Christian Dior』, p.176.



<그림 2> Yves Saint Laurent, S/S 1964, 『Yves Saint Laurent』, p.34.

형태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이처럼 프랑스 패션에서 나타나는 단순과 장식의 이중적 특성은 무지의 단일 색상이나 단순한 구조의 형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획일성을 탈피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재질이나 트리밍의 변화를 통한 장식적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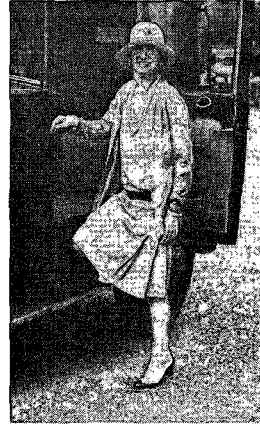
## 2) 전통과 현대

프랑스는 과거와 현실, 보수와 진보, 깊음과 가벼움이 대립하는 가운데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과 진보적인 현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양립한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의 특성은 프랑스 패션이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 특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소재나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진보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현대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프랑스 패션에 나타나는 현대적 특성은 192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국제적 디자인 운동의 기반이 형성되어 건축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 제품 그리고 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모더니즘의 특성과 상통한다. 모데

니즘은 과거의 것, 역사적인 것을 완전히 타파하고 새로운 기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나 장식을 거부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며, 간결성·명쾌성·순수성·합리성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제적 양식이다<sup>36)</sup>.

샤넬이 자신이 모드 분야에서 일하게 된 동기와 혁명적인 형태를 창조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 일에 투신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혁명의 틀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나를 유쾌하게 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을 유행에 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나는 필수불가결한 재정리 작업을 위한 운명의 도구였다”<sup>37)</sup>라고 말한 것처럼, 샤넬 스타일의 출발은 과거의 스타일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불필요한 디테일과 장식을 제거하고 기능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샤넬의 작품은 모더니즘적인 특성을 대변한다.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어울리는 활동적이고 편안하며 젊어 보이는 현대적인 캐주얼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특히, <그림 3>에서와 같이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기능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저지라는 소재는 샤넬이 추구하는 패션에 있어서 모던 혁명을 명쾌하게 나타내는 요소이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몰두하여 과거적인 면을 완전히 탈피한 까르댕(Pierre Cardin)<sup>38)</sup>은 과거에는 복식에 사용되지 않았던 재료를 통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발표한다. <그림 4>는 울 저지 소재 위에 마름모와 직선, 직사각형의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와 비닐 소재 특유의 광택 효과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샤넬은 동시에 “나는 모드가 아니라 스타일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였다.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지금은 모드와 스타일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샤넬이 언급한 말의 의미는 “모드란 즉각적이며 순간적인 것이고, 스타일은 계속 새로움을 더해 가지만 그 기본은 그대로 남는다”<sup>39)</sup>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샤넬이 모드와 새로움을 무시하고 언제나 지속성과 영속성만을 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림 3> Chanel, 1928. 『CHANEL: The Couture At Work』, p.52.



<그림 4> Pierre Cardin, L:1970/R:1968. 『FASHION』, p.576

그녀는 다른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새로움을 더해가면서 변화될 수 있었고, 샤넬 스타일은 이를 통해 그 전통성을 유지하며 지속될 수 있었다. 즉,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여성들의 정신과 육체를 자유롭게 하고자 했던 그녀의 철학만큼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창조했던 모드에는 현대성과 전통성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패션의 현대적 특성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형태나 혁신적인 시도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전통적 특성은 하나의 스타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현됨으로써 나타난다.

### 3) 남성과 여성

프랑스는 생물학적 성의 기준에 따라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별하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복식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복식을 통해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구분 짓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프랑스 패션은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 남성적 이미지 또는 여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외형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노스럽(Northrup)은 남성적 특질을 가진 양(陽)의 개념을 딱딱함·강함·박력·지구력·위엄·남성다

움·무거움·큼·성숙함이라 했고, 여성적 특질을 가진 음(陰)의 개념을 섬세함·부드러움·온화함·연약함·우아함·예민함·여성다움·풍부함·젊음·빛남이라하였다<sup>40)</sup>. 즉, 성적 개념에 따라 남성에게는 엄격하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공격적인 특질이 요구되어지며, 여성에게는 부드럽고 민감하며 수동적인 특질이 요구되어진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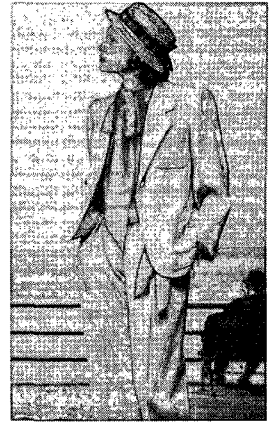
따라서 프랑스 패션은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간자·시폰과 같은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하며, 파스텔 색상이나 자수·비딩 장식을 통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쟁 중 남성화된 복식에 여성스러운 감각을 표현한 디오르는 <그림 5>에서 잘룩한 허리를 강조하는 벨트와 아이보리 색상의 얇은 오간자 소재 위에 놓여진 화사한 프랑스 국화(國花) 문양의 자수를 통해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여성성(femininity)을 발현하는 패션의 전통적인 여성성의 개념은 남녀 불평등 및 그로 인해 초래되는 귀결인 여성 억압과 직결되어 왔다<sup>42)</sup>. 이에 샤넬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여성복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그림 3>과 같이 여성복에 단순함, 편안함, 명료함 등에 의한 새로운 '여성다움'을 확립하여 여성성을 재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샤넬의 스웨터는 폴로 경기장에서 남성이 착용하였던 니트 셔츠(폴오버 스웨터)를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다. 남성 스웨터를 다시 재단하여 앞을 트고, 가장 자리를 리본으로 장식하였으며 옷깃에는 나비 리본을 부착한 카디건 형태의 여성 스웨터를 만들었다. 샤넬의 여성용 스웨터는 남성용 스웨터와 같은 편물류(hand-knitted fabric)로서 디자인 측면에서 기능성과 더불어 남성미와 여성미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합리적인 멋을 부여하였다<sup>43)</sup>. 그러나 샤넬이 남성복의 스타일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한 것은 편안함이나 실용성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남성성이 내포하는 자신감, 독립심과 같은 강한 이미지를 여성복에 표현하려한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초, 이브 생 로랑은 여성에게 팬츠를 입힘으로써 <그림 6>과 같은 남성복의 직선적



<그림 5> Christian Dior, S/S 1992, 『Christian Dior』, p.111.



<그림 6> Yves Saint Laurent, 1978, 『Yves Saint Laurent』, p.131.

실루엣을 선보였다. 그의 팬츠 룩은 밀려드는 유니섹스의 풍조와 때를 같이해서 여성 해방을 나타냈으며, 나아가서는 보다 큰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의식 혁명으로까지 그 맥을 이어가게 된다. 또한 그는 여성복을 기능화 시켰으며 팬츠를 스포츠 웨어가 아닌 정장과 캐주얼 웨어로 등장시켜 여성 복식에 대혁명을 일으킨다<sup>44)</sup>.

## 2. 다문화성(Multiculturalism)

다문화성은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식의 형태·문양·색상·소재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다문화주의란 글자 그대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키며 지배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 20C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으로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민족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자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sup>45)</sup>.

지리적 환경에 의한 잦은 이민족의 침입과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책을 통해 주변 문화의 요소가 쉽게 흡수될 수 있었던 프랑스는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에 앞서 자연스

럽게 다양한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이에 타문화에서 비롯된 문화적 요소를 복식에 도입하여 문양이나 형태 등을 통해 표현하는 특성이 20C 초부터 나타나는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 감각 또는 현대적 감각과 융합함으로써 프랑스적 특성으로 재창출되어 표현된다. 샤넬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세계 각국의 민속 의상을 그대로 산출하여 만든 것을 의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구성하고 쓸데없는 것을 배제하여 세련되게 변형시켜야 한다<sup>46</sup>)고 주장하였다.

파리가 1918년 이후 몰려드는 러시아인들의 망명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샤넬은 192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많은 모티프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샤넬 이외에도 디오르나 지방시, 이브 생 로랑은 이국적인 요소를 복식에 도입한 대표적 디자이너들이다. 1953년 디오르의 'Quiproquo'라는 작품명을 가진 <그림 7>은 일본 문자가 프린트된 원단이 사용되었다. 깊게 파여진 넥라인과 전체적인 실루엣은 서구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양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시(Givenchy) 작품의 민소매 코트 <그림 8>은 cut-velvet 소재 위에 'Chinese' 나무 문양을 프린트하여 이국적 느낌을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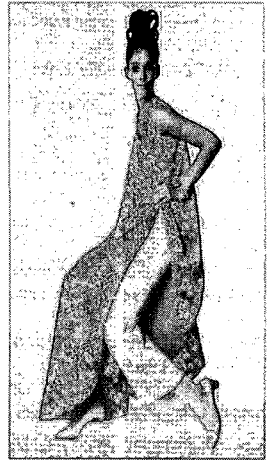
아프리카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이브 생 로랑은 1967년 S/S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룩(African Look)'을 발표하였는데, 하퍼스 바자는 이 컬렉션에 대해 '원시적 창조의 환상'이라고 평하였다. <그림 9>는 원색적인 색상의 조화, 도식적으로 단순화시킨 문양, 나무 재질과 유리 재질의 비즈로 장식된 화려한 요크 장식을 통해 원시적인 아프리카 민속 의상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6년에는 러시아 오페라 발레 컬렉션을 통해 <그림 10>과 같이 호화스럽고 여성스러우며 장식적인 스타일로 낭만적인 분위기가 절정을 이룬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 패션의 다문화성은 동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나 민속복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문양·색상·형태 등에 도입하여 서구적 감각 또는 현대적 감각과 융합함으로써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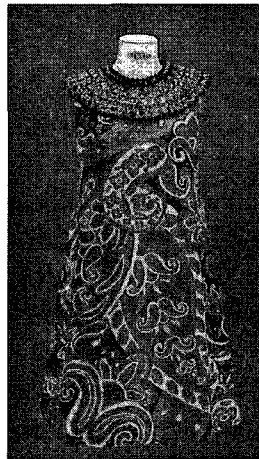
랑스적 특성으로 재구성되어 표현된다.



<그림 7> Christian Dior, S/S 1951, 『Christian Dior』, p.89.



<그림 8> Hubert Givenchy, 『Givenchy』, p.58.



<그림 9> Yves Saint Laurent, S/S 1967, 『Yves Saint Laurent』, p.567.



<그림 10> Yves Saint Laurent, 1976/77, 『FASHION』, p.363.

### 3. 실험성(Avant-gardism)

프랑스 패션의 실험성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 시도되지 않은 새로움을 표현하는 특성이다. 예술적 표현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취미를 반영하는 프랑스 문화의 실험적인 특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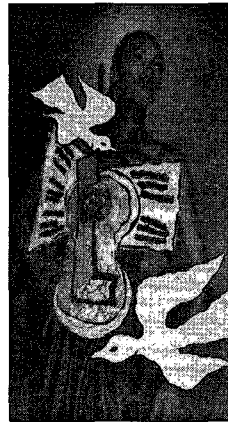
인해 순수 예술 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기존의 미학 방식이나 사고체계를 뒤엎는 실험적 성격의 아방가르드 양식이 나타난다. 즉,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 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정신으로 인해 새로운 미적 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 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예술<sup>47)</sup>이다.

'모든 작품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상징적인 20세기 예술가 가운데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피카소의 예술을 패션에 접목한 사람이 바로 이브 생 로랑이다. 장 콕토(Jean Cocteau) · 고갱(Paul Gauguin) · 마티스(Henri Matisse) · 고흐(Vincent Van Gogh) · 브라크(Georges Braque) 등 예술가의 오마주(hommage)를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냈던 이브 생 로랑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예술과 패션의 접점을 시도하여 아름다움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림 11>은 1987년 브라크의 새 모티프를 새틴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 위에 응용한 작품이다.

또한 디오르는 기교적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복식의 조형적인 실루엣을 강조하였는데, 1947년 뉴욕을 기점으로 1950년대의 '디오르 라인 알파벳 시대'에 이르는 전위적 입체 조형을 발표하면서 파리 오프 꾸뛰르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즉,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시공간적 조형으로서의 복식 형태를 추구<sup>48)</sup>했던 것이다. <그림 12>는 광택 나는 브로드 클로스(broad cloth)의 이브닝 드레스 위에 새틴(satin)감의 가위형 스커트를 연출하고 있다. 허리 위치에서 오른쪽 옷감이 왼쪽 스커트 위를 교차하며 스커트 끝단을 향해서 왼쪽으로 뻗어가고 있는 정교한 기하학적 디자인이다. 허리에서 힙까지의 뾰족한 형태와 새틴의 광택이 마치 가위를 연상시킨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와 소재를 개발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탐험가적인 가르덴은 "나의 패션은 항상 인공위성이나 컴퓨터, 레이저, 또는 전자 기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는 미래를 지향한다. 나에게 직물은 거의 이차적인 것이

다. 나의 의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형태 · 건축 · 기하학이라고 믿는다"<sup>49)</sup>라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 패션 작업은 예쁜 슈트나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림 13>의 가르덴 작품은 인체를 하나의 조형 공간으로 인식하여 라인과 볼륨의 형태 본질을 기하학 측면에 관점을 두고 실험적인 태도로 접근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가르덴과는 다르게 지방시는 복식의 형(form)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인위적인 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와 절묘한 기술과의 통합으로 새로운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그림 11> Yves Saint Laurent, 1988, 『Yves Saint Laurent』, p.223.



<그림 12> Christian Dior, 1949, 『Dior』, p.190.



<그림 13> Pierre Cradin, 1971, 『Pierre Cardin』, p. 96.

이와 같이 프랑스 패션은 인체를 하나의 조형 공간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새롭고 기하학적인 복식 형태를 강조하거나, 신소재·신기술이 접목된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

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문화는 예술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과 감성적인 정열이 그 표현 방식을 달리하며 공존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과 진보적인 현대를

<표 2> 프랑스 패션의 미적 특성

문화적 특성	이원적 구분과 관용			다문화적 요소의 영향	다양한 예술적 표현의 시도
내적 내용	이중성			다문화성	실험성
외적 형태	단순&장식	전통&현대	여성&남성	현대적 요소 + 민속적 요소	조형적 형태
형태	단순: -단순·직선적 라인의 fit한 형태 -좌·우 대칭의 형태 장식: -복잡하고 과장된 구조	전통: -하나의 스타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형태 현대: -과거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새로운 형태	여성: -여성의 곡선적 조형미를 그대로 표현한 형태 남성: -남성적 이미지를 도입한 직선 형태	-민속복에서 착안한 특징적인 실루엣 -현대적 감각의 단순한 형태	-전위적인 입체 조형
색채	단순: -단일 색상 장식: -다채로운 색의 믹스	전통: -단색의 중채도 색상 현대: -블랙과 원색의 대비 -금속 색상	여성: -밝고 화사한 파스텔 색상 남성: -무채색 계열	-다채로운 색채	-무채색 계열이 主 -원색의 대비
문양 및 재질	단순: -면·울·저지·실크 등의 다양한 소재 장식: -공단·레이스·쉬폰·모피 등의 화려한 재질	전통: -면·울·실크 등의 천연 소재 현대: -금속성 재질 -광택 효과가 나는 코팅 소재	여성: -얇고 부드러운 재질 -꽃과 같은 여성적 이미지의 문양 남성: -무지의 무게감 있는 재질	-다양한 재질 -타문화의 문화적 또는 민속적 요소를 대변하는 문양	-하이테크 소재(메탈릭 소재, 3차원 소재) -코팅 소재
디테일	단순: -비장식성 장식: -자수·플리츠·셔링·핀턱·프릴 등	전통: -커프스·칼라·포켓의 구조적 디테일 현대: -구조적인 선을 제거	여성: -자수·러플·셔링·플리츠·오버래핑 등 남성: -커프스·칼라·포켓 등의 구조적 디테일	-민속풍의 자수·프린팅·오버래핑·러플·셔링 등	-새로운 기술로 형태를 재구성
트리밍	단순: -최소화된 트리밍 장식: -비즈·코사지·리본·깃털 등과 같은 트리밍	-최소화된 트리밍	여성: -비즈·리본 등의 적절한 트리밍 남성: -최소화된 트리밍	-비즈·모피·타슬·브레이드 등	-최소화된 트리밍

### III. 결론

프랑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내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선, 프랑스 문화의 형성 배경을 통해 고찰한 프랑스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적 경향이 양립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물학적 성의 기준에 따라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구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 역사를 따라 흐르는 이원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현대 프랑스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린

문화 현상이지만 이중적인 대립적 요소들은 오늘날 프랑스 정신으로 대표되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포용되고 인정된다. 둘째, 프랑스는 지리적 이점에 의한 잦은 이민족의 침입과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책을 통해 주변 문화가 쉽게 융화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산출하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셋째, 프랑스 예술은 르네상스에 그 뿌리를 두고, 새롭고 다양한 취미를 반영하는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은 영화·연극·사진·패션 등의 분야에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표현 방식을 지양하고 항상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프랑스 현대 패션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성은 프랑스의 이원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내적 내용으로 단순과 장식, 전통과 현대, 여성과 남성의 대립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미를 추구하지만 장식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하나의 스타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하는 전통성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남성미·여성미를 적절하게 융화시킨 합리적인 경향도 함께 나타난다. 둘째, 다문화성은 동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식의 형태·문양·색상·소재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현대적 감각 또는 프랑수아적 감각과 융합함으로써 재구성 되어 표현된다. 셋째, 실험성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체를 하나의 조형 공간으로 인식하여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새롭고 기하학적인 복식의 형태에 의해 강조되거나 신소재·신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패션의 외형적 특성은 문화적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표현되는데, 프랑스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상통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다 부각시키면서 그들만의

패션을 세계적인 패션으로 보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개성을 근거로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현대는, 특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특성이 혼재해 나타나지만, 패션은 복잡하고 모호한 특성 속에서도 문화의 고유한 내적 의미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의 문화 선진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도 한국만의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독특한 패션을 육성하되, 패션의 세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패션을 세계적인 패션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Mendes, Valerie & Amy de la Haye 저,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 10.
- 2) R. Hoggart (1970).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p. 156.
- 3)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76). *Subculture, cultures and class*. London: Hutchinson, pp. 10-13.
- 4) Lehnert, Gertrud (1998). *Fashion*. London: LAURENCE KING, pp. 18-19.
- 5) 문화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 가령 지리·기후·정치·역사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의 제도나 예술 등의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Huntington, Samuel P. & Harrison, Lawrence E. 저, 이종인 역 (2001).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p. 33.
- 6) 김현권 외 (2002). 오늘날의 프랑스.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 164.
- 7) 문화와 사람들(2002). 프랑스 문화와 사회. 서울: 만남, p. 14.
- 8) 김현권 외. *op. cit.*, p. 3.
- 9) 김미연 외 (2002). 프랑스 문화.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pp. 9-16.
- 10) 김현권 외. *op. cit.*, p. 3.
- 11) 황종득 (1994). 프랑스 여성과 노동. 여성문제 연구, 22, p. 5.
- 12) 김민정 (1998). 프랑스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문제점. 한국정치학회보, 32(1), p. 290.
- 13) 김현권 외. *op. cit.*, p. 355.
- 14) 이재욱 (2003).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사나. 서울: 신아사, p. 100.
- 15) Lefebvre, Georges (1961). *The french revolution: From its origins to 1793*. New York: Columbia

- University Press, pp. 19-27.
- 16) 김현권 外. *op. cit.*, p. 304.
  - 17) 송도영 外 (2003). 프랑스의 문화 산업 체계. 서울: 지식마당, p. 251.
  - 18) 조병옥 (1998). 프랑스 문화와 문화 정책. 공주: 공주대학교 출판부, p. 1.
  - 19) 김미연 外. *op. cit.*, p. 176.
  - 20) Klein, Dan & McClelland, Nancy & Haslam, Malcom (1986). *In the deco style*.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p. 7.
  - 21) 고봉만 外 (2003). 프랑스 문화와 예술, 악의 꽃에서 사넬 No.5까지. 서울: 한길사, p. 191.
  - 22) 문화와 사람들. *op. cit.*, p. 97.
  - 23) 관용(tolérance)은 유럽의 처참한 종교 전쟁이 낳은 산물로서 18C에 장 칼라스(J. Calas)라는 사람이 신교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죽게 되자 이에 격노한 볼테르(Voltaire)가 <톨레랑스론(Le Traité sur la tolérance)>(1763)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 루소(J.-J. Rousseau) 등 다른 계몽철학자들도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볼테르(Voltaire)는 이교도에 대하여,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이민족에 대하여, 루소(J.-J. Rousseau)는 반대편 정치 이념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였다. 김현권 外. *op. cit.*, p. 9.
  - 24) 이광래 (1999). 프랑스 철학사. 서울: 문예출판사, pp. 11-29.
  - 25) 윤민희 (2000). 현대 프랑스 디자인의 경향. 2000 세계 학술 발표회 연구 자료집, 프랑스 문화 예술 학회, p. 32.
  - 26) Pascal, B. 저, 최현, 이정림 역 (1986). *PENSÉE*. 서울: 범우사, p. 15.
  - 27) Debbasch, Charles & Jean-Marie Pontier 저, 김지은, 김정근, 김미현 역 (2004).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La Société Française).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76.
  - 28) 김현권 外. *op. cit.*, p. 9.
  - 29) Edward W. Fox (1973). *L'autre France*. Paris: Flammarion
  - 30) 김미연 外. *op. cit.*, p. 52.
  - 31) 고봉만 外. *op. cit.*, p. 209.
  - 32) Morand, Paul (1976). *L'allure de chanel*. Paris: Hermann, p. 114.
  - 33) Martin, Richard & Koda, Harold (1992). *Flair*. New York: Rizzoli, p. 96.
  - 34) Giroud, Françoise (1987). *Christian dior*. New York: Rizzoli, p. 72.
  - 35) 김지휘 (1992). 크리스찬 디오르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0.
  - 36) 정시화 (1991). 산업 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pp. 134-135.
  - 37) Morand, Paul. *op. cit.*, p. 143.
  - 38) Mendes, Valerie (1991). *Pierre Cardin(Past Present Future)*. London/Berlin: Dirk Nishen Publishing, p. 9.
  - 39) *Vogue*. 1997, 6, p. 147.
  - 40) Northrup, B. (1936).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stume and Personality. *Art Education Today*, pp. 94-104.
  - 41) 전혜정 (1993).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5.
  - 42) Wilson, Elizabeth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 117.
  - 43) 양유미. *op. cit.*, p. 25.
  - 44) 도유미 (2002). 현대 예술 사조와 이브 생 로랑의 작품 세계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 45) 최혜정 (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
  - 46) 이미숙. *op. cit.*, p.112.
  - 47) 노정심 (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 48) 김지휘. *op. cit.*, p. 41.
  - 49) O'hara, Georgina (1985).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from 1840s to the 1980s)*. London: Thames and Limited., p. 63.